탈북민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 (gender gap)

왜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보다 탈북민에 부정적인가?

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임시정

Aug 10, 2021

연구동기: 한국이 지속가능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사회 균열 양상에 대한 이해 필요

연구동기

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보다 북한이탈주민(탈북민)의 수용(admission), 지원 (assistance), 통합(integration)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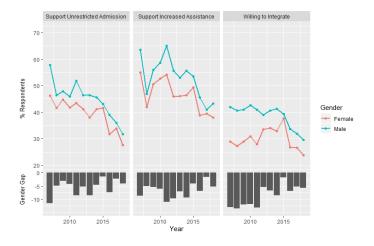


Figure 1: 통일의식조사(2007-2018)

1

연구동기

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의 선호가 남성 유권자의 선호와 유의미하게 다르다면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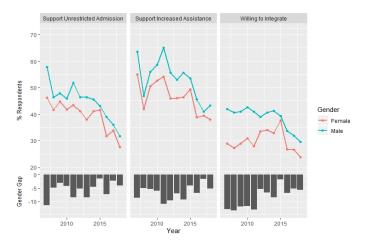


Figure 1: 통일의식조사(2007-2018)

1

연구동기

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배치

- 서구 사회의 경우 난민에 대한 태도에 성 격차가 없음
- 성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난민에게 더 우호적; Modern Gender Gaps (Inglehart and Norris 2000)
-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상황에 더 공감하고 보호하고자 함

탈북자 대다수는 사회경제적 취약집단

- 누적 탈북민 70% 이상, 최근 3년간 탈북민 80% 이상이 여성
- 여성 탈북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은 5% 에 불과, 엘리트 직군 출신은
 2.8%

연구질문: 왜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보다 탈북민에

부정적인가?

가설 1: 동성 간 경제적 경쟁

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(labor market segmentation by gender)이 심한 사회일 수록 동성간 경쟁이 두드러짐





가설 1: 동성 간 경제적 경쟁

-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(labor market segmentation by gender)이 심한 사회일 수록 동성간 경쟁이 두드러짐
- 기존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성비 불균형이 동성의 자국민과 이민자 사이의 경쟁을 촉발
- 언론이 탈북민의 이미지를 비숙련 여성직종 종사자로 고착화
- 한국 남성은 탈북민과 경쟁할 가능성이 낮으나, 저교육 비숙련 한국 여성은 탈북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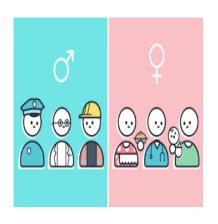
가설 1: 동성 간 경제적 경쟁

-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(labor market segmentation by gender)이 심한 사회일 수록 동성간 경쟁이 두드러짐
- 기존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성비 불균형이 동성의 자국민과 이민자 사이의 경쟁을 촉발
- 언론이 탈북민의 이미지를 비숙련 여성직종 종사자로 고착화
- 한국 남성은 탈북민과 경쟁할 가능성이 낮으나, 저교육 비숙련 한국 여성은 탈북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

가설 1: 탈북민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는 저학련, 저숙련 집단에서 나타날 것이다. 반대로 고등 교육을 받은 고숙련 집단에서는 성 격차가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.

가설2: 외집단(out-group) 경계심의 성 격차

• 전통적 성사회화(gender socialization)는 남성에게는 도전적 모험적인 태도를, 양육자로서의 여성에게는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대함



4

가설2: 외집단(out-group) 경계심의 성 격차

- 전통적 성사회화(gender socialization)는 남성에게는 도전적 모험적인 태도를, 양육자로서의 여성에게는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대함
- 이 같은 사회화으로 인하여 여성은 외집단(out-group)에 대하여 남성보다 높은 경계심을 보일 수 있음
- 북한을 외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경계심이 한국 남성보다 한국 여성에게 크게 나타날 것이며, 이는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짐

가설2: 외집단(out-group) 경계심의 성 격차

- 전통적 성사회화(gender socialization)는 남성에게는 도전적 모험적인 태도를, 양육자로서의 여성에게는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대함
- 이 같은 사회화으로 인하여 여성은 외집단(out-group)에 대하여 남성보다 높은 경계심을 보일 수 있음
- 북한을 외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경계심이 한국 남성보다 한국 여성에게 크게 나타날 것이며, 이는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짐

가설 2: 탈북민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집단에서 나타난다. 반대로 양국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성 격차는 관찰 되지 않을 것이다.

가설3 (가설 2의 연장선): 북한 관련 지식의 성 격차

- '외집단→경계심/회피'의 관계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상쇄가능함.
- 성사회화(gender socialization)가 남성 주도적 주제에 대한 여성의 지식과 정보 획득 의지를 저하할 수 있음.
- 기존연구에 따르면 지역통합(EU), 금융투자 등에서 보이는 성 격차가 관련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관찰 되지 않음
- 탈북민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태도의 성 격차는 북한에 대한 지식의 성 격차와도 관련 되어 있을 것임

가설3 (가설 2의 연장선): 북한 관련 지식의 성 격차

- '외집단─→경계심/회피'의 관계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상쇄가능함.
- 성사회화(gender socialization)가 남성 주도적 주제에 대한 여성의 지식과 정보 획득 의지를 저하할 수 있음.
- 기존연구에 따르면 지역통합(EU), 금융투자 등에서 보이는 성 격차가 관련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관찰 되지 않음
- 탈북민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태도의 성 격차는 북한에 대한 지식의 성 격차와도 관련 되어 있을 것임

가설 3.0: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에 대해 북한에 대해 (스스로 평가하는) 지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.

가설 3.1: 탈북민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는 스스로 북한 관련 지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. 가설 검증: 통일의식조사 (2007-18; N > 14000)

Baseline: 여성 변수와 탈북자에 대한 태도 간 유의미<u>한 음의 상관관계</u>

	Admission	Assistance	Integration	Index
	(1)	(2)	(3)	(4)
Female	-0.198***	-0.223***	-0.153***	-0.323***
	(0.033)	(0.032)	(0.014)	(0.029)
Age	0.099***	0.073***	0.019**	0.070***
	(0.015)	(0.015)	(0.006)	(0.013)
University	0.234***	0.266***	0.056***	0.215 ***
	(0.038)	(0.037)	(0.016)	(0.034)
Economic Class	0.050*	0.103***	-0.016	0.008
	(0.022)	(0.021)	(0.010)	(0.020)
Ideology	-0.143***	-0.173***	-0.047***	-0.138***
	(0.020)	(0.020)	(0.009)	(0.019)
National Pride	0.239***	0.254***	0.095***	0.275***
	(0.024)	(0.024)	(0.011)	(0.023)
NK Threat	-0.033	0.053*	-0.068***	-0.101***
	(0.022)	(0.022)	(0.010)	(0.021)
NK Contact	0.174***	0.199***	0.173***	0.351***
	(0.044)	(0.043)	(0.019)	(0.040)
Constant			3.151***	5.345 ***
			(0.063)	(0.134)
N	14,371	14,371	14,371	14,371
Year Fixed Effects	✓	✓	✓	✓
Region Fixed Effects	✓	✓	✓	✓
Model	Ordered	Logistic	Linear	Linear

 $^{^{*}}p < .05; \, ^{**}p < .01; \, ^{***}p < .001$

가설 1 (동성 간 경제적 경쟁): Not Supported

	DV: P	ro-Defector Attitud	ie index
		Working Popu	lation Only
	Women On		
	(5)	(6)	(7)
Female	-0.344***	-0.270***	
	(0.040)	(0.051)	
White Collar Women			-0.107
			(0.063)
University	0.194***	0.211***	0.180**
	(0.045)	(0.047)	(0.064)
	:	:	
Female*University	0.046	-0.004	
	(0.059)	(0.070)	
	:	:	
N	14371	10562	4096
Year Fixed Effect	✓	✓	✓
Region Fixed Effect	✓	✓	✓

 $^{^{*}}p < .05; \, ^{**}p < .01; \, ^{***}p < .001$

대학 교육 (proxy for skill) 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아님. 사무직 종사 여성과 여타 근로 여성 간에도 유의미한 태도의 차이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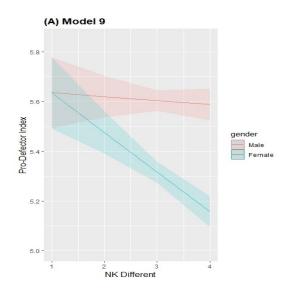
가설 2 (외집단 경계심의 성 격차): Supported

DV: Pro-Defector Attitude Index High Knowledge (8) (9)(10)(11)(12)-0.319***Female 0.144 0.150 0.171 -0.007(0.029)(0.151)(0.150)(0.150)(0.427)NK Different -0.089***-0.016-0.039-0.036-0.130(0.024)(0.035)(0.034)(0.034)(0.079)Female*NK Different -0.144**-0.114*-0.114*-0.043(0.047)(0.046)(0.046)(0.131)0.332*** 0.303*** NK Knowledge (0.022)(0.022)0.131*** 0.284*** Political Interest (0.022)(0.056)Ν 14371 14371 14371 14371 2223 Year Fixed Effect Region Fixed Effect

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성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차이를 강하게 느끼는 집단일 수록 큼 (모델 9)

^{*}p < .05; **p < .01; ***p < .001

가설 2 (외집단 경계심의 성 격차): Supported



가설 3 (북한 관련 지식의 성 격차): Supported

	DV: Pro-Defector Attitude Index				
					High Knowledge
	(8)	(9)	(10)	(11)	(12)
Female	-0.319*** (0.029)	0.144 (0.151)	0.150 (0.150)	0.171 (0.150)	-0.007 (0.427)
:	:	•		:	
NK Different	-0.089*** (0.024)	-0.016 (0.035)	-0.039 (0.034)	-0.036 (0.034)	-0.130 (0.079)
Female*NK Different	(,	-0.144** (0.047)	-0.114* (0.046)	-0.114* (0.046)	-0.043 (0.131)
NK Knowledge		(=====)	0.332*** (0.022)	0.303***	()
Political Interest			(0.022)	0.131*** (0.022)	0.284*** (0.056)
:	:		:	:	
N	14371	14371	14371	14371	2223
Year Fixed Effect Region Fixed Effect	√ ✓	√ √	√	√ √	√ √

 $^{^{*}}p < .05; \, ^{**}p < .01; \, ^{***}p < .001$

북한에 대한 지식 (self-reported) 은 남성 (2.20)이 여성 (1.85) 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(t=28.489, p<0.001). 지식 변수를 통제하면, 성 격차는 30% 정도 감소함 (모델 9 vs. 모델 10).

가설 3 (북한 관련 지식의 성 격차): Supported

	DV: Pro-Defector Attitude Index				
					High Knowledge
	(8)	(9)	(10)	(11)	(12)
Female	-0.319*** (0.029)	0.144 (0.151)	0.150 (0.150)	0.171 (0.150)	-0.007 (0.427)
:	:	:	:	:	
NK Different	-0.089*** (0.024)	-0.016 (0.035)	-0.039 (0.034)	-0.036 (0.034)	-0.130 (0.079)
Female*NK Different	(,	-0.144** (0.047)	$-0.114* \\ (0.046)$	-0.114* (0.046)	-0.043 (0.131
NK Knowledge		()	0.332*** (0.022)	0.303***	(
Political Interest			(0.022)	0.131*** (0.022)	0.284*** (0.056
:	:	:	:	:	
N	14371	14371	14371	14371	2223
Year Fixed Effect Region Fixed Effect	√	√ √	√	√	√ √

 $^{^{*}}p < .05; \, ^{**}p < .01; \, ^{***}p < .001$

북한에 대한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북간 사회적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성격차가 관찰 되지 않음 (모델 12)

- 한국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사회 균열의 양상들을 경험적으로 분석 필요
- 탈북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 균열의 해소는 그 시의성 및 여타 사회통합 이슈 (이민자, 난민, 다문화 가족 통합 등)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

- 한국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사회 균열의 양상들을 경험적으로 분석 필요
- 탈북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 균열의 해소는 그 시의성 및 여타 사회통합 이슈 (이민자, 난민, 다문화 가족 통합 등)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
 - 제주 입국 예맨 난민 신청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같은 방향의 성 격차가 관찰됨.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입국 초기인 2018 년 6월 (N=500) 남성의 45.8%, 여성의 32.3% 가 수용에 찬성함. 1년 뒤인 19년 7월 조사 (N=500) 에서 성 격차는 더 벌어져 남성의 48%가, 여성은 27.0%가 찬성 의사를 보임.
 -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대다수가 남성임을 고려할 때, 리얼미터 조사에 나타난 성 격차 역시 경제적 경쟁보다 외집단 경계심의 성 격차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큼.

- 한국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사회 균열의 양상들을 경험적으로 분석 필요
- 탈북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 균열의 해소는 그 시의성 및 여타 사회통합 이슈 (이민자, 난민, 다문화 가족 통합 등)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
- 특정한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성 정책보다, 지식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열린 토론을 정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균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